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면허취소까지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해철법'도 가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골자를 한 의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가수 신해철의 의료사고 사망을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신해철법'도 통과됐다.

먼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와 관련된 법안은 서울 양천구의 D의원 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내원한 환자 54명을 상대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을 감염

시키자 범죄화됐고 이 병원 K모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의 일회용 주사기 관련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힌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 또는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

를 5년으로 정하되 처분사유가 중한 경우엔 7년으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함께 진료중인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밖에 의사 등이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내주는 경우 약제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 이름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명 '신해철법'도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신해철법)을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의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한다.

감정단장은 의학적 자문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한다.

/박용주 기자

고도소 출소 두달 만에 절도

고도소에서 출소한 뒤 두달 만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9일 차량을 상습적으로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황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16분께 군산시 중앙로 한 상가 앞에 주차된 A(39)씨의 그랜저카니발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이날부터 최근까지 군산 시내에서 차량 5대를 훔치고 병인 응급실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지갑 등을 들고 나오는 등 총 20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 범행으로 지난 3월 고도소에서 출소한 황씨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진수 기자



전주시는 19일 동서학동 남교사 인근 '딱정벌레숲'에서 아이들과 김승수 시장, 아이숲 다올마당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자연속의 놀이터 '숲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역대 사기행각 4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19일 재산이 많은 것처럼 지인들의 속여 돈을 빌려 갔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진모(48)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

진씨는 지난 2010년 9월 전주시 덕진구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지인 A씨에게 "중고차매매 사업자금을 빌려 주변 아버지 소유 15억 원 상당의 땅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받은 뒤 갖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그는 지난해 6월까지 지인 2명으로부터 2억4000여 만 원을 빌린 뒤 갖지 않았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진씨는 지인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많은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주 기자

자연속의 놀이터 '전주 아이숲' 오픈

시, '딱정벌레숲' 숲들이 행사

전주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자연과 생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자연속의 놀이터인 전주 아이숲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19일 동서학동 남교사 인근 '딱정벌레숲'에서 숲의 주인인 아이들과 김승수 전주시장, 시의원, 아이숲 다올마당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자연속의 놀이터' 숲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조성된 전주 아이숲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자연

속의 놀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색적인 풀잎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숲 경계줄에 나무이름표 달기, 나무움막 짓기 등 자연친화적인 놀이 활동으로 꾸며졌다.

특히 '나무이름표 달기'는 아이들이 직접 나무판에 그림을 그리고 이름을 적어 줄에 매는 형식으로 진행돼 아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시는 전주 아이숲이 공식 개장함에 따라 보다 많은 전주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보다 씩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시장은 이날 "보통 미끄럼틀이 있는 일상의 놀이터에서는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 두 가지밖에 생각나지 않지만 생태숲 놀이터는 수심, 수백가지들 상상하게 만들고, 자연을 배우며 자연에 대한 지식과 지혜, 용기와 협동을 배울 수 있다"며 "전주시는 딱정벌레 숲과 임금님 숲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10개소의 생태 숲 놀이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 아이숲은 현재 완산구 동서학동 남교사 부근에 위치한 '딱정벌레숲'과 덕진구 덕진동 조경단 옆에 위치한 '임금님 숲' 등 총 2곳에 조성, 시는 중앙부처와 전북도, 시의원, 다올마당 위원 등과 협의의 협의를 거쳐 전주 아이숲 놀이터를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독서문화한마당 개최

21~22일 전주동물원에서

전주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 행사를 갖는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전주동물원 중앙잔디광장에서 '제11회 독서문화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책과 함께하는 행복관 시민 축제를 주제로 추진되며 독서관련 민간단체와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등 20여개의 단체가 참여해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독서체험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체험프로그램으로는 그림자 인형극과 모기 기피제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격정인형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전자책, 브리프 만들기 체험, 책

갈피 만들기, 달고나 만들기 체험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또한 동물원 내에서 책을 빌려주는 잔디밭 도서관과 전주시서점조합협회에서 아동 및 일반 도서를 10% 할인 판매하는 서점도 문을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사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자기표현 역량을 기르고, 합리적인 사고를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어린이 독후활동 대회'가 같이 펼쳐진다.

전주시 거주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번 대회는 5세에서 초등1학년까지 독후화 그리기와 초등2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독후감 쓰기 2개 분야로 진행된다.

/김영재 기자

김제시의회 찌라시 사건 수사

제7대 김제시의회가 후반기를 이끌어 갈 원 구상을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정 A의원에 대한 비방 글이 전주지검에 고소장이 접수 되면 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A의원은 최근 김제시의회와 시청, 지역주간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복사한 찌라시가 의원들 방에

뿌려진 것에 대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특정인을 겨냥해 의회에 시정 등에 글을 올리는 것은 악의적으로 흠집을 내려고 밖에 생각 할 수 없으며, 이런 한 일들이 발생한 자체가 부끄럽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애인 인권 침해 뿌리뽑는다

도, 시설 관리자 교육 강화 참여도 평가지표에 반영

전북도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 근절 대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

19일 도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도 주관으로 연 1회 이상 종사자별(시설장,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설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인권교육 참여도를 시설 평가지표에 반영해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교육 참여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남원의 모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이 입소 장애인들을 가혹하게 폭행하여 무더기로 법의 심판대에 놓이는 등 도내 여러 시설에서 크고 작은 인권침해 사례가 적잖이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은 인권의 가치, 시설이용자 인권달래마 사례, 인권감수성 등에 관한 것으로 복지부 주관의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

병행된다.

또한, 인권조사전문요원 교육을 이수한 전문조사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인권실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인 면담원 양성 및 보수교육 이후 시설거주 장애인 및 종사자 전수 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번 조사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외, 입소자 전원(타 시설로 옮김) 조치,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경찰청·인권전문가 등으로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인권침해 의심 사례에 대한 민·관 합동 협업조사를 강화하고,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며, 시설 내부 공익신고 유도를 위한 포상금 지원제도 마련 및 CCTV설치 확대, 행정처분 외에 최대 5년간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영수 기자

천년을 숨 쉬는 전주한지

천오백 지천년(絹五百紙千年)이라는 말처럼 한지는 질기다
전주한지는 만지면 느껴지는 촉감이 부드럽다
전주한지는 통기성이 좋다
전주한지는 보온성이 좋다

한지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

한지 수의, 남궁림 한지벽지, 장판 수제한지탁순지, 색한지, 공예용지, 예술지, 예단지, 예견지 응용한지인견한지, 대례지, 한회지, 손수운용지 이토피피부염, 미백에 효과가 있는 한지비누, 닥보말떡 각종 한지사 제품 넥타이, 양말, 지갑, 손수건, 러너 등

전주시 <http://www.jeonju.go.kr>